이렇게 들었다

동족은 공업중생

"서로 공경하며 서로 돕고…"

▨친족끼리 서로 친근하고 공경하면서 서로 돕고 고락을 함께 하도록 하면 이것으로 북방(北方)이 안온할 것이니, 이것이 북방에 대한 예배니라.〈육방예경〉

지난 2월 28일 제3차 이산가족 교환 방문단이 2박3일간의 아쉬운 만남을 뒤로 한 채 서울과 평양으로 각각 귀환하는 장면은 동족의 진한 정을 다시금 느끼게 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민족이면서 이산의 슬픔을 안고 사는 상봉 가족들은 또 다시 '짧은 만남, 긴 이별'이란 비극을 연출했다.

이를 지켜 본 불자들은 이것이 우리 민족이 지은 공업(共業)임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진정한 참회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통해 민족의 통일 · 번영에 대한 원력을 새롭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구상에는 우리처럼 분단의 고통은 아니지만, 다른 종족과의 끊임없는 분쟁으로 날마다 아수라의 세계에서 사선을 넘나드는 민족들이 적지 않다.

지난 2월 18일 시작된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중부 칼리만탄주의 종족간 분쟁은 2월 27일 현재 사망자가 1천여명이 넘을 것이라는 비공식 집계가 나올 정도로 대량 살육전으로 치닫고 있다.

르완다 등 아프리카 곳곳의 종족분쟁, 중동지역의 종교전쟁을 동반한 종족분쟁 등은 대량 학살과 함께 순환적인 피의 복수를 부르고 있다. 상대에 대한 용서와 자비 없이는 분쟁의 종식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응부경전〉은 "성내는 자를 향해 성내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승리를 얻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성냄에 대해 정념(正念)으로 자신을 진정시키는 자는 스스로를 이기고, 성내는 자를 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며, 진정한 승리는 용서임을 설하고 있다.

▨석가족을 멸망시키고자 세 차례나 쳐들어오는 코살라국의 유리왕을 막았던 부처님께서는 네 번째 정벌에 나선 군대를 막지 않으셨다. 이것을 알게 된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의 신통력으로 유리왕과 그 군사를 다른 세계로 던져버릴 수 있나이다."

"그렇다면 너는 석가족의 전생 인연까지도 다른 세계로 던져 버릴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나이다."

"목련이여, 자리에 돌아가 앉아라. 석가족의 전생 인연이 무르익어 이제는 과보를 받아야 할 것이니라."〈증일아함경〉

석가족의 멸망을 인연법으로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묘사하고 있는 이 장면은 부처님 재세시의 종족분쟁을 보여주는 한 예다. 동족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되 그 애착으로 말미암아 이웃 종족과 민족을 멸하는 비인간적인 살상행위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이 시대가 진정 '문명시대'라고 한다면.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대안학교, 한가한 실험 아니다

불자 세상보기

'제 앞가림 할 힘' '더불어 살 힘' 길러주는 것이 교육

윤구병
변산공동체학교 대표

대안교육은 말 그대로 현존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되는 교육이다. 대안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도교육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교육이 없으면 인간도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다른 생명체들은 교육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다. 조상들의 지난 삶의 기억은 유전정보의 형태로 후손들에게 몸에서 몸으로 물려주고 물려받아 본능에 의지해서 되살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집 짓는 능력도, 불을 지피고 옷감을 짜는 능력도 배우고 익혀야만 발휘할 수 있다. 걸음마도, 말도 마찬가지 듯이 교육은 인류의 생존과 존속에 필수적이다.

부모와 어른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은 어제 오늘 비롯된 것은 아니고, 인류가 지상에 나타난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지속돼 왔다. 다만 시대와 지역에 따라 교육의 형식과 내용에 변화가 있어왔을 따름이다.

하지만 인류역사에서 교육이론과 형식, 내용이 아무리 변천을 거듭해 왔다고는 해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육에는 반드시 지켜진 대원칙이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미래사회의 구성원인 아이들에게 '스스로 제 앞가림을 할 힘'을 길러주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사람도 벌이나 개미처럼 여럿이 떼지어 살도록 운명지어진 생명체이므로 '더불어 살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어느 때, 어느 곳을 가리지 않고 이 대원칙에 따르는 교육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가 열렸고, 이 대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 사회는 멸망하거나 해체되었다. 따라서 대안교육이 필요한지 어떤지에 앞서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현재 우리 교육제도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제 앞가림을 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 힘을 제대로 길러주는 쪽으로 기능하고 있는가'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아닌가. 두 가지 측면을 보자. 첫째는 시간의 문제다. 어떤 생명체든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삶의 시간을 스스로 통제할 힘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전에는 식물과 동물, 하다못해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없다. 싹트고, 꽃피고, 열매맺을 시간을 스스로 내면화하지 못하는 식물이 어떻게 제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저지르고 있는 행태를 보라. 부모들은 물론 교육자를 자처하는 사람들마저도 아이들이 걸음마와 옹아리를 제대로 익히기 전부터 아이들 시간 뺏기에 혈안이 돼있는 실정이다. 머지 않아 아이들의 정신적인 집단학살(?)로 드러날 이 극한에 이르는 집단학대를 교육의 이름으로 부끄러움없이 버젓이 저지르는 사회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스무 해가 넘게 타인에 의해서 통제 당하면서 기계적인 시간계획에 길들여진 사람에게 '스스로 제 앞가림을 할 힘'을 기대하는 것은 삶은 밤에 싹돋기를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부질없는 노릇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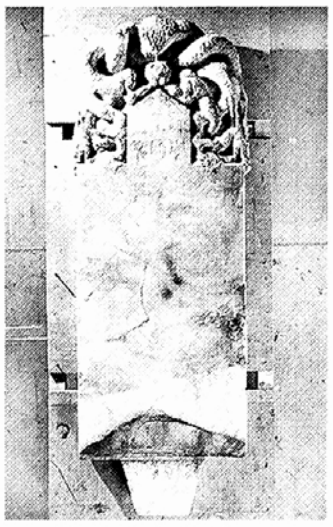
둘째는 너무나 자명한 것임에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더불어 살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 힘은 무한경쟁 체제에서는 절대로 길러질 수 없다.

대안교육과 대안학교는 한가한 실험도 아니고, 선택 가능한 또하나의 방편도 아니다. 미래의 민족 공동체, 인류 사회의 명운이 걸려 있는 문명사적인 대전환을 우리는 대안교육이라 부르고자 한다. 어른들에게 빼앗긴 시간과 경쟁 속에서 잃어버린 친구들을 아이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복원된 '회암사 선각왕사비'

문화재청 "경기도 박물관" 불교계 "사찰 박물관으로"

문화재청이 최근 보존처리를 마친 회암사 선각왕사비(보물 제387호)의 보관장소를 경기도 박물관으로 결정함에 따라 불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2월 22일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보존처리 후에는 경기도박물관에 이전한다는 97년 결정을 재확인하고 경기도 박물관 이전을 결정했다. 하지만 교계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관장소를 둘러싼 의견이 대립하는 것은 '소유권'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부터다. 지금까지 국가 소유로 알려졌던 선각왕사비가 문화재청 자료에도 소유자가 회암사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부터 교계와 문화재청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보존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교계에서는 성보문화재이기에 당연히 종단내 박물관 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복원된 회암사 선각왕사비.

교계 입장 고려말 나옹화상의 일대기를 새겨넣은 선각왕사비가 복원된 것은 뜻깊은 일이다. 산불로 수백 개의 돌조각으로 변한 비가 복원된 것은 현대의 과학기술과 문화재연구소의 피땀어린 정성이 빚어낸 성과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생겼다. 비의 소유가 국가가 아닌 사찰임이 확인되자 사찰의 성보박물관으로 이전돼야 한다는 주장이 교계일각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가장 큰 배경에는 그 동안 박물관으로 간 몇몇 사찰소유 문화재가 제대로 반환되지 않고 있는 사례들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 때문에 사찰박물관 가운데 이전전시나 보존에 필요한 시설을 가장 잘 갖춘 통도사 성보박물관으로 옮기자는 주장도 나오는 것이다.

문화재는 원래 위치에 있을 때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제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소유자로 돼 있는 회암사에 보존시설이 없어 옮기기 힘들다면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이해당사자인 사찰과 종단, 경기도와 문화재청이 지금이라도 당장 법적 구속력을 갖출 수 있는 합의서를 마련해야 한다. 회암사나 경기도내에 사찰박물관이 건립되어 보존시설이 갖춰지면 반환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계약하는 방식의 위탁관리체계를 세우는 일이다.

문화재청 입장 문화재는 원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문화재보존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복원된 회암사 선각왕사비는 보존처리를 마쳤다고는 하지만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워낙 많은 조각으로 갈라지다 보니 접합부위의 강도가 약해져 세워놓는 것도 무리다. 원래 자리인 야외에 세워놓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

복원처리된 문화재는 보존조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소유자로 되어있는 회암사의 경우 보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사찰박물관에 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경기도에는 보관할 만한 사찰박물관도 없다. 다른 지역 사찰박물관으로의 이전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경기도박물관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것이 현재로선 과학적 보존처리가 끝난 유물보존을 위한 최선책이다. 더군다나 이 같은 결정은 97년 문화재위원회에서도 결정한 상황이고, 그 결정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다. 그 당시에는 보존장소에 대한 이견이 없다가 이제 와서 보관장소를 둘러싸고 다른 주장을 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기고

"외모지상주의 모두를 불행하게 마음이 중요하다"

방귀희
방송작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다. 그 첫번째는 외모이다. 얼굴이 잘 생기고 키가 훤칠하고 통통하지도 마르지도 않은 적당한 체격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호감을 갖는다. 그리고 두번째 기준은 말이다. 말을 잘하면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세번째 기준은 글인데 글을 잘 쓰면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끝으로 보는 것이 마음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 마음까지 파악해서 좋고 나쁘고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저 눈으로 척 봐서 남자는 잘 생겨야 하고 여자는 예뻐야 사람 취급을 받는다. 이런 시각 우선주의 때문에 사람들은 얼굴을 고쳐서라도 근사한 외모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성형 수술을 택한다.

성형 수술의 피해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피해는 수술에 성공했다 해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성형 수술로 원하는 외모를 얻은 후 사람들은 그 사실을 숨긴다. 비밀이 생겼다는 것은 심리적인 불안감을 갖고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달라진 외모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잃게 된다. 진짜 자신과 가짜 자기가 있는 듯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사람한테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 외모는 겉포장 일 뿐이다. 외모지상주의가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아니 인간을 파괴시키고 있다

이런 무서운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 외모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사람은 마음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름다움도 추함도 마음에 달려있다고 하신 것이다.

2001년 포교사 대학 입학안내

21세기는 고도의 전문화된 포교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견고하고 불퇴전의 용맹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바른길을 제시 할 수 있는 통찰력 갖춘 불교지도자를 어느 때보다 요청됩니다. 1981년 설립된 본 대학은 현재 1000여명의 포교사가 활동 중이며 초(법)종단 대덕 스님, 교수, 법사님을 초청하여 각 분야별 전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젊고 유능한 포교사 양성을 위한 200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오니 뜻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강의시간
주 2일 월 · 수 2강좌 각 90분 강의 출석, 야간수업
직장인을 위한 야간(토요반)운영 ◎ 개강 : 3월 19일

◎ 교육과목
1학년 1학기 - 불교개론, 한국불교사, 불교문화사, 법화사상, 원효사상, 불교의식
2학기 - 근본불교, 아비달마구사론, 반야사상, 불교사회복지론, 선문염송, 생활불교
2학년 1학기 - 유식론, 중국불교사, 법화사상, 정토불교사상, 밀교특강,
2학기 - 불교경전 개설, 인도불교사, 화엄사상, 선종사상, 원각경강독, 불교상담론

◎ 강사진
무진장스님, 법신스님, 운곡스님, 오국근교수, 오형근교수, 리영자교수, 서윤길교수, 박경준교수, 한정섭박사, 이혜숙교수, 김사업박사, 경일교수 ; 이보봉스님, 문보경스님, 노범산스님, 장각성스님, 구해스님, 최홍주법사, 최중찬교수, 이건호회장, 김철회회장, 임선정원장, 허은법사, 곽대일법사, 김일룡법사

◎ 모집 및 전형 (2년제 야간 - 출강, 통신과정)
◎ 모집과목 및 인원 포교사학과 출강 35명, 통신 100명
◎ 지원자격 기존 불교교양대학 수료 및 불교교리 숙지자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전형방법 서류전형, 선착순 등록금(1학기) 30만원
◎ 특전사항 - 포교사 과정이수 후 수료증, 포교사 자격증, 포교사증 수여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지도자 과정 입학 가능
- 스님, 교임, 종단 추천 스님(특별장학금 지급)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이사장, 학장, 교수, 봉사, 기타)지급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지원

※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교무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2)720-1001 팩스 02)722-1585
※학사일정은 사정에 의해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포교사협회 회장 이혜철

E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연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특허청에 의장등록 (제0246178호)
승복·법복·누비·바랑판매안내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특 징
1.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특허청에 연꽃·옴자·만자무늬를 의장등록함.
2. 원단에 무늬가 입체적으로 은은하게 들어 있어 아주 특수함.
3. 누비로 만든 저고리, 바지, 방한복에도 무늬가 들어 있으며, 특수하게 제작하여 소매끝에도 바람이 들지않게 고급스럽게 디자인함.
4. 바랑에도 여러가지 무늬가 있어 아주 세련되고 편리하며 100%방수 처리함.
5. 개량한복처럼 세련되게 디자인 되었으며 원가를 많이 절감함.

스님께 가사 불사 보시하면 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재 팔난을 소멸함.

판매가격표

저고리 바지, 조끼	男 女	130,000
누비 (上,下)	男 女	180,000
누비방한복 (上)	男 女	130,000
누비조끼	男 女	60,000
누비동방 (두루막)	男 女	180,000
바랑		30,000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 부산, 경남 대리점 (051)514-8896
· 지역 대리점 모집 중
· 지역 판매점 모집 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 원 섬 유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133-1 (봉용빌딩 3층)
상담전화 (053)764-4114/팩스 (053)741-4119
휴대폰 011)9850-4400

달마스님이 심혈을 기울여 집필한
達磨大師의 四柱秘傳 사주비전

〈정가 : 35,000원〉
著者 達磨
◎본 책의 판매대금은 달마사 건립기금으로 조성됩니다.

- 목 차 -
1. 우주의 기운 2. 역의 시원
3. 시간과 운명 4. 사주 분석과 해석
5. 인연법 6. 작명 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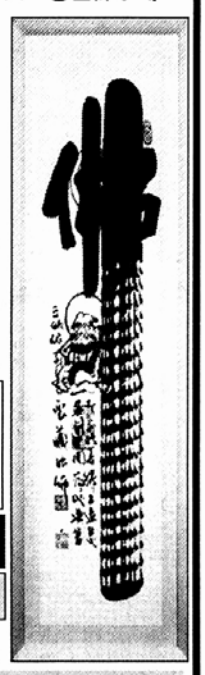
부 록
作名法 【좋은 이름 짓는 비법 수록】
大法院 人名用 漢字 2,962字 수록

첫번째 인연은 전생에 있고
두번째 인연은 사주에 있고
세번째 인연은 이름에 있고
네번째 인연은 궁합에 있고
오복은 이것을 잘분석 하는
진정한 도인을 만남에 있다.

※ 구입송금 계좌번호 (입금후 전화 주십시요)
중소기업은행 097-034764-01-014 예금주 달마사
구 입 문의처 051-301-4949 011-301-4949

男女 철학원생모집
과 목 : 풍수, 사주, 작명, 궁합, 관상, 부적 과 정 : 초급반, 고급반, 개원반, 자격증반
강 사 : 원장직강(사주비전外 10여권 저술) 사주·감정 : 원장직강(사주비전外 10여권 저술)
계좌번호 기업은행 012-027395-01-017 달마사
卍 달마사 달마스님 (051)301-4949 (011)301-4949 (0 2)999-5551 · 999-4804
비구니 부전스님 구합니다.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용의 금을 꾸세요~"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그림(수백과 차단) 목발보시!
2000년 대통령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불자 용자)
한국 수백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대한민국 미술작품 화랑방 (korea art gallery) www.korea-art-gallery.org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33)766-0057 · 0058
E-mail :unjang21@kornet21.net
●주문 신청방법 우체국 013698-02-045909 조정순 농 협 307077-51-031273 운장사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덕화산 돌탑부처 기도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한국불교 예술문화원